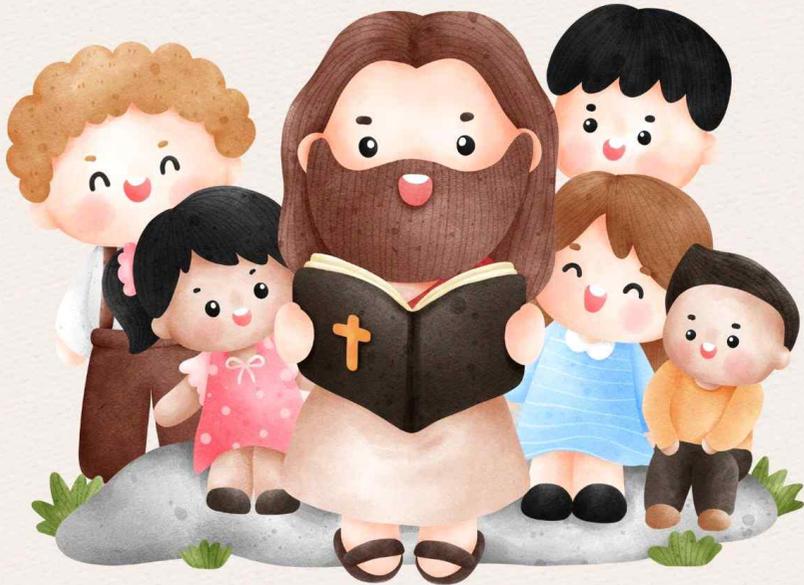




## 가정

#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밤에 방 불을 끄면 깜깜하지만, 손전등을 켜면 얼굴이 밝아지죠? 오늘 말씀 이야기 속 모세 아저씨 얼굴도 반짝반짝 빛났대요!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약속을 다시 새롭게 맺을 거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햇빛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와! 하나님을 만난 얼굴이야!” 하고 뒤로 물러섰지요.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시 벗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밝아져요! 속제를 도와달라던 동생에게 웃으며 “같이 해보자!” 하고 말할 수 있고, 친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넬 수도 있지요. 밤길에 붙이는 반짝이 스티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이면 누구나 우리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친구가 속상해할 때 어깨를 토닥이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 주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빛이세요.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예배드릴 때마다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요. 그러면 우리 집, 우리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터까지 환하게 밝아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크게 따라 말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빛을 비출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